

조르주 바타유의 반건축적 사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ti-Architectural Thinking of Georges Bataille

강 혁*

Khang, Hyuk

(경성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Compared with other philosophers and writers who were engaged in architecture Georges Bataille was extraordinary. Because he produced anti-architectural discourse. This paper studied the Bataille's thinking with relation to architecture that used as a fundamental and privileged metaphor. Philosophy regarded as the foundation of all academic discipline needed architecture in order to show its system was durable, synthetic and hierarchical. The will to build a solid system of reasoning made philosophy to call architecture to pretend that it is structurally stable. Metaphor and representation is inevitable in philosophy. Then architectural image that supported by discourse of philosophy became a representation of sociocultural system. According to Bataille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justified existing power and belief system. With architecture Identity always represented the true and good. This kind of architectonic thinking erased the Other that allowed metaphysics and symbolic Against architecture Bataille produced writings of violation and excess corresponding to labyrinth. Labyrinth in fact made a formal structure of architecture possible to be a metaphor of symbolic system. Bataille's anti-architectural thinking paradoxically shows the importance of Architecture and give a chance to rethink the ethical aspect of architecture instead of aesthetics.

주제어 : 바타유, 반건축, 은유로서 철학, 구조와 구축, 동일성과 타자

Key words : Georges Bataille, Architecture as metaphor, structure and system, Identity and the Other

1. 서론

조르주 바타유(1897-1962)는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 평론가, 사상가이다.¹⁾ 직업적으로나 전문 영역에서 그는 건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건축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건축에 관한 일련의 글들을 썼다. 서구 문화의 전통에서 건축을 직능으로 지니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건축에 대한 담론을 펼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아베 로지에, 카를로 로돌리, 클로드 페로, 폴 발레리²⁾ 같은 이들이 다른 전문 영역에 속하면서 독자적인 건축론을 제시한 바

있다.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빅토르 위고나 괴테, 헤겔도 비전공자로서 건축에 관한 특유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바타유의 건축에 대한 개입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타유의 경우에 흥미로운 사실은 건축에 대한 그의 관점, 입장, 논조가 일반적인 이론적 관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즉, 건축의 사회 문화적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건축의 가치와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좋은 건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와 같은 건축 내적인 관심사의 피력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바타유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건축을 다루고 논한다. 더불어 그는 서구적 사유의 전통, 즉 주류 철학의 학문적 전통을 건축과 관련하여 조명하면서 그것의 본질적 특성을 '건축적'이라 규정하고 거기에 수반하는 문제와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바타유의 건축에 대한 특유의 입장을 반(反)건축적이

* Corresponding Author : hkang@ks.ac.kr

1) 한국 학계에서는 Bataille를 바타유, 바타이유 혹은 바파이유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가 채택하는 바타유로 하되 저서나 번역에 다르게 되어있을 경우 각주에 그대로 인용했다.

2) 그들의 직업은 성직자, 과학자, 문인, 철학자 등으로 다양하다.

라고 부를 수 있을 터인데, 이때 ‘반건축’은 바타유의 사상과 글쓰기(담론)의 지향성을 드러내는 말이자 개념으로,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이면서 사유와 담론 체계의 건축과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이 된다.

본 연구는 조르주 바타유의 건축에 대한 사상, 특히 그의 반건축적 사유를 정리 기술하고 분석하여 그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것이 건축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논하려는 것이다. 건축하는 이들은 대개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면서 공유하는 게임의 규칙, 혹은 분과 내 기율(discipline)을 가지고 상호 소통해왔다. 거기엔 건축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 곧 건축에 의한 삶의 변화(개선)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바타유의 반건축적인 사유에 귀 기울인다면 건축에 대한 다른 입장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것을 통해 건축 자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바타유는 프랑스 철학의 유행과 함께 소개되고 유입되었지만 푸코, 데리다, 바르트, 들뢰즈, 알튀세, 라캉 같은 대가급 사상가들에 비해 생소한 인물이고 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일천한 편이다. 그의 몇 권의 저서와 소설이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을 뿐이며³⁾, 문학이나 철학 분야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타유에 대한 관심은 여러 방면으로 확대되는 듯하다. 독창적인 작가이자 심오한 사상가로서 바타유 자체가 충분히 흥미롭고 연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서 일 것이며⁴⁾, 또한 우리 사회가 합리성으로 규정이 불가능한 이질성이나 타자성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그의 사유가 필요해져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건축’이란 명제로 그의 사상이 조명되거나 연구된 적은 거의 없으며, 건축계에선 특히 그러하다. 서구 건축학계에서도 바타유는 소수의 이론가나 비평가에서 의해 포스트구조주의나 해체주의, 페미니즘과 관련해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정도이다.⁵⁾ 본 논문은 건축 이론과 인문학을

횡단하는 일종의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면서 바타유의 반건축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바타유의 사유의 전경을 그리거나 거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그의 반건축적 사유에 중점을 두고 건축 영역과 관련해 계발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것이 연구의 범위가 한계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바타유의 주요 텍스트들의 독해와 함께 그의 반건축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서인 드니 올리에의 『콩코르드 광장의 점령』(La prise de la Concorde)⁶⁾ 독해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밖의 바타유의 텍스트와 그와 관련된 참조물의 독해를 통해 이루어졌다.⁷⁾

2. 조르주 바타유

바타유는 시대적으로 구조주의 이전의 작가, 사상가에 속한다. 후배적인 포스트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사상가로 바타유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⁸⁾ 오늘날 바타유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유를 전개한 철학자, 개성 있는 문학작품을 생산한 작가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그의 사후 간행된 12권의 바타유 전집에 수록된, “이제 우리는 안다. 바타유가 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이라는 미셸 푸코의 헌사에서도 잘 드러난다.⁹⁾ 철학, 인류학, 미술, 사회학, 경제학을 아우르는 그의 사상은 에로티시즘, 죽음, 신비주의, 금기와 위반의 문제에 대한 극한에 이르는 천착으로 규정되곤 한다.

반건축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사상가이기 전에 문학가로서의 그의 위상이다. 사르트르에서 보듯이 철학자이면서 소설가인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프랑스 문화계의 풍토이다. 하지만 바타유에게 문학, 곧 글쓰기(ecriture)는 자신의 사고를 피력하고 표현하는 수단에 머물지 않고 건축으로 상징되는 체계적인

3) 국내에서 바타유는 조한경, 차지연 같은 문학비평 전공자들에 의해 주로 소개되고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바타유의 저서와 소설은 2021년 현재 10권 내외로 번역 출판되어 있다.

4) 바타유는 민음사간 『103인의 현대사상, 20세기를 움직인 사상의 모험가들』에도 선정되었다.

김우창 외, 『103인의 현대사상』, 민음사, 1996, 255-261쪽

5)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The MIT Press, Cambridge, 1996

Elizabeth Grosz, *Architecture from the Outside*, The MIT Press, Cambridge, 2002

Andrew Benjamin, *Architectural Philosophy*, The Athlone Press, London, 2000

6) Denis Hollier, *La prise de la Concorde, Essais sur Georges Bataille*, Gallimard, Paris, 1993

7) 위의 책의 영어판 번역이 *Against Architecture, The Writings of George Bataille* 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바 있다. 그러나 번역은 불어 원전의 1/3 정도를 생략한 편집본에 가깝다. 1974년 출간된 초판 텍스트를 번역한 영어 번역판 역시 참조하였다.

Denis Hollier, *Against Architecture, The Writings of Georges Bataille*, trans. by B. Wing, The MIT Press, Cambridge, 1974

8) Michael Richardson, *Georges Bataille*, Routledge, London, 1994, p. 4

9) Georges Bataille, *La Part Maudite* (『저주의 몫』, 조한경 역, 문학과지성, 서울, 2004), 287쪽

이론, 곧 철학으로 대표되는 학문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바타유의 글쓰기(문학)는 집짓기(건축)에 대립하는 대안적인 수단이자 철학(=건축)에 저항하는 방식으로서 그의 존재와 사유의 본령을 짐하는 것이다. 『콩코르드 광장의 점령』에서 저자 드니 올리에는 바타유가 도입한 글쓰기의 유희가 ‘반건축적’인 성격을 지니며 ‘반건축적’ 몸짓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⁰⁾ 건축이 상징하는 질서와 권위와 위계에 반하는 바타유의 글쓰기는 서구적 사유의 전통 바깥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말할 수 없는 것, 의미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바타유는 (사드처럼) 불온하고 위험한 작가였다.¹¹⁾ 40년 동안 가명으로, 그것도 제한된 판본과 소량의 출판으로 그의 소설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때론 검열받고 판금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발적이고 외설적인 글을 외면할 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인간과 문화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고 심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잔인하고 끔찍한 그의 이야기들은 상상의 것이지만 낭비와 향락을 추구한 자신의 삶의 체험을 관통해 나온 것이었다. 위반으로 점철된 불가능한 그 이야기들은 “존재와 주체를 소진시키는 불길, 형벌과 같은 고통과 자아 상실, 그 뒤에 오는 희열의 체험, 즉 극단의 체험”으로 점철되어 있으며¹²⁾ 그의 텍스트가 단순한 작품 생산을 넘어선 실천적 글쓰기의 소산으로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그의 글쓰기가 사상가로서 바타유의 사유와 이어져 있음은 물론이며, 그 가운데 반건축이란 주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1922년에 바타유는 국립고문서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런 학문적 배경으로 중세연구가 그의 주 전공이 되었다. 그가 평생 동안 공식적으로 지냈던 직함인 도서관 사서 역시 여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상가 상당수가 국립 고등사범학교 출신이며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가르치거나 우수한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바타유는 평생을 공무원의 신

분으로 살았다. 젊은 시기에 가톨릭에 귀의하고 신부가 되고자 한 적도 있었지만 신앙을 버리고 반기독교적 입장에 섰으며, 니체와 프로이트를 읽고 깊은 영향을 받았고 코제브의 헤겔 강의¹³⁾,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수업을 들으며 점차 자신의 세계를 일궈 나갔다. 1920년 초엽에 바타유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 매료되어 동료들과 어울리는가 하면, 1930년대에는 반파시즘과 공산주의 운동에 경도되기도 했다. 작가로서 평생에 걸친 글쓰기와 소설 집필도 1930년을 전후하여 시작되며, 이때를 기점으로 「도퀴망」, 「아세팔」, 「비평」과 같은 잡지들의 발간과 편집에 깊이 관여하는 한편, 그곳에 자신의 사유를 담은 일련의 에세이를 발표하는데, 이런 활동은 1962년 그의 사망 시까지 계속되었다.¹⁴⁾

바타유가 일관된 사상 체계와 이론, 원리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에 그의 사유와 주장을 요약해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저주의 뭉』, 『에로티즘』,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과 같은 평론집을 일독하면 그의 사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사회와 문명의 토대인 이성과 계획은 인간의 삶을 합리적인 계산과 절제, 축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근대 자본주의에서 극단화되는데 바타유는 여기에 반발해 낭비와 탕진, 향락을 옹호하고, 인간 이성과 인식이 구축한 체계에 저항하고 벗어나려는, 거의 불가능한 시도를 추구한다.¹⁵⁾ 극한에 이르는 그의 글쓰기는 그 실천이자 방편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간 존재의 한계 바깥을 탐색하고 인간을 인간에게 하는 것 너머까지 밀어붙이는, 과잉과 위반과 타락의 몸짓을 통하여 합리적 세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비지(非知)의 세계를 넘보려 하는 것이다.¹⁶⁾ 이성과 질서와 체계에 대립하는 죽음과 폭력과 에로티시즘에 대한 바타유의 집착은 무질서, 나아가 해방과 관계되며 반건축적 사유 역시 그것과 무관할 수 없다. 이는 그 무엇에도 예속되기를 거부하는 그의 ‘극단적인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도 이해할 수 있

10)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 52

11) 흔히 바타유는 사드의 적자라 일컬어진다. 그만큼 두 사람의 글(문학)은 깊은 상관이 있으며 바타유는 사드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바타유의 소설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의 대표 저서인 『에로티즘』에 잘 드러나 있다.

Georges Bataille, *L'Erotisme* (『에로티즘』, 조한경역, 민음사, 서울, 1989), 184-221쪽

12) 조한경, 「조르주 바타유」, 김우창 외, 『103인의 현대사상』, 민음사, 서울 1996, 256쪽

13) 코제브의 헤겔 강의를 들은 이는 바타유 외에도 메를로 폰티, 자크 라캉, 레이몽 아롱 등 있다. 코제브의 헤겔 강의는 푸코,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지식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4) 바타유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 『저주의 뭉』 등 국내 바타유 번역서에 참고 자료를 참고하였다.

Georges Bataille, *Lascaux Ou La Naissance de L'Art*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 차지연역, 위크롭, 서울, 2017), 361-404쪽

15) Georges Bataille, “소모의 개념”, 『저주의 뭉』, 조한경역, 문학동네, 서울, 2004, 27-48쪽

16)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 57

을 것이며¹⁷⁾, 그의 부정과 불가능성의 추구는¹⁸⁾ 역설적으로 긍정과 해방과 신성을 희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성이 지배하는 안정과 질서의 닫힌 체계에 저항하여 낭비를 내세우며 불복종과 전복을 추구하는 바타유의 소수자적이고 국외자적인 입장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3. 바타유의 반건축적 사유 1 : 건축 비판

바타유의 반건축적 사상의 기원에는 그가 생애 최초로 쓴 본격적인 에세이인 「랭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다. 그가 가톨릭과 결별한 1920년 이전에 쓴 이 텍스트의 존재에 대해 바타유 자신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그의 죽음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글이 건축(대성당)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건축의 찬양을 통해 교회와 국가를 옹호한 것이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에 걸친) 반건축적 사상과 입장에 반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바타유가 유년 시절을 보낸 랭스 소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독일군에 의해 처참하게 파손되었다. 바타유는 전쟁의 참화로 인한 랭스 대성당의 파괴를 안타까워하면서 복원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¹⁹⁾ 여기서 그는 대성당을 프랑스의 상징이자 모성과 순결, 신앙과 안전의 상징으로 상징한다. 대성당의 파괴는 그러한 가치의 파괴이며 대성당의 재건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바타유는 “대성당은 실제로 성모마리아였다”라면서 건축의 현존이 가지는 상징적 힘을 옹호한다.

흥미로운 것은 아직 바타유가 헤겔 철학과 헤겔의 건축적 은유를 알지 못했을 때 쓴 이 글에서 대성당의 ‘부정에 대한 부정’으로서 지양(Aufhebung)과 정반합의 도식²⁰⁾ (무의식 간에)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선함과 신앙의 상징인 대성당이 정(these)이라면, 동시대의 유물론과 결부된 대성당을 파괴하는 전쟁이 반(antithese)으로, 그리고 신앙의 연속성과 전쟁의 부정으로서 대성당의 수복이 합(synthesis)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²¹⁾ 건축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이 텍스트는 대성당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찬양이자, 시간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신성한 것의 가시적 구현인 기념비적인 건축에 대한 옹호라는 점에서 친(親)건축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바타유가 쓴 생애 최초의 글은 “건축에 의해 상징되고 지지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체계”의 소산이었으며, 그것의 (무의식적) 추종이었던 것이다. 긴 침묵 끝에 바타유는 이 에세이에 반하는, 최초의 자기 글을 부정하는 글쓰기를 재개한다. 이후 그의 글쓰기 작업 전체는 이 텍스트를 “무효화하고 지우는”, 즉 부인하고 다시 쓰는 것이 되었다고 올리에는 주장한다.²²⁾ “위계적이면서 동시에 위계를 생산하는 구조”인 건축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바타유의 글쓰기는 감화시키고 교화하는(동시에 억압적이기도 한) 모든 체제와 권위를 잠식하고 파괴하는 반건축적 행위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1929년에서 1930년 사이에 바타유는 잡지 「도퀴망」에 수록된 「비평사전」의 제작에 - 초현실주의자 동료들과 함께 - 참여했다.²³⁾ 미완성으로 끝난 이 사전 편찬의 기획에서 바타유는 14개의 항목을 집필한다. 비평사전은 건축(Architecture)으로 시작되는데 필자로서 바타유는 2페이지에 걸쳐 건축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한다. 여기서 바타유는 인간의 질서는 건축적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축은 사회의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며, 초월적인 실재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것이다.²⁴⁾ 건축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반영하고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질서를 수호하고 구성하는 체계이다. 사회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건축에 의지하게 한다. 사회 질서를 보장하고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 생산 장치로서 건축은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에다 사회를 고착시킨다.

여기서 바타유는 기호이자 상징이며 이미지로서 건축의 표상 작용에 주목한다. “교회나 국가는 대성당과 궁전의 형태로 민중들에게 호소하고 침묵을 강요한다. 실제로 기념비적 건축이 사회적 삼가와 진짜 공포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바타유는 기술한

17) 장 피엘, 「서문, 바타유와 세계」, (조르주 바타유, 『저주의 몫』, 조한경역, 문학동네, 서울), 16쪽

18) Georges Bataille, *L'impossible* (『불가능』, 성귀수역, 위크림, 서울, 2007)

19)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p. 35-43

20) Bryan Magee, *Some Creators of Contemporary Philosophy*, (『헤겔』, 『위대한 철학자들』, 동녘, 서울, 1994), 227쪽

21) 올리에의 견해이다.

22)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 52

23) 바타유의 비평사전은 말의 의미를 고정시키고 그 사용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사전의 편찬이 아니라 말의 작용에 주목하면서 어휘 질서를 파괴하는, 가짜 사전 혹은 반(反) 사전인 것이다. 이 점에서 「비평사전」은 실패할 운명이고 완성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24) Georges Bataille, “Architecture”, 「Documents」, No. 2, mai 1929, p.171

다.25) 모든 불온한 요소를 억누르면서 존엄과 권위를 내세우는 데 건축이 동원되는 것이다. 건축은 거의 항상 지배자의 편에 서며 민중의 피와 땀을 요구한다. 표상 기능을 통해 건축은 지배 이념과 권력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회유하면서 체제의 정당성과 존속에 복무한다. 그런 건축의 기능을 바타유는 “고관대작의 건축이 있을 뿐 그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라고 표현한다.26)

더욱 중요한 것은 건축이 권위와 신성의 허구성을 감추고 문화적 동일성을 구성해 공동체에 강요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과놓은 이미지의 덮으로 사회를 포획하는 것이다. 표상을 통해 건축은 사회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하지만 동시에 건축은 사회의 실체를 은폐하기도 한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 못지않게 덮고 가리는 것도 건축의 중요한 기능인 것이다. 건축물의 은폐 기능은 무덤, 그 중에서도 기념비적인 무덤인 피라미드에서 잘 드러난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타자성을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방어 체계이다. 여기서 건축의 역할은 “죽음이 숨김없이 삶속에 끌어들이는 미완성을 감추는 어떤 형상을 제공하는” 일이다.27)

바타유는 건축의 기원을 주택이나 신전이 아닌 감옥에서 발견한다.28) 그것은 건축이 지배와 억압의 장치이자 길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건축은 “사회의 초자아를 표상하는 심금”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이는 건축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이지만 건축의 양면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헤겔이 잘 지적했듯 건축의 역할이 공동체의 건립인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29) 오히려 바타유의 주장을 따르면, 인간은 건립하고 거주하면서 사회적 동화를 통해 그 내부에서 일종의 수인이 되는 셈이다.

건축의 기원이 감옥이라는 바타유의 견해는 감금 제도에 대한 분석이자 일종의 건축 비평이기도 한 푸코의 유명한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30)과 일맥상통

하는 듯하다. 그러나 ‘감옥으로서 건축’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푸코의 감옥이 훈육을 목적으로 은밀하게 관찰하고 주시하면서 거주자를 수용하고 유도하는 공간의 건축이라면, 바타유의 그것은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면서 보는 이를 위협하고 설득하는 가시적인 형태의 건축이다. 즉 푸코의 감옥이 공간적 용기(用器)로서 인간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쳐 길들이는 장치라면, 바타유의 감옥은 형태와 표상을 통해 주목을 끌면서 침묵이나 순종을 유도하는 장치이다.31)

바타유는 이런 입장을 확장하면서 건축의 의인론적(anthropomorphism)적 은유를 비판하는데,32) 인간의 형상, 곧 인간의 육체 나아가 존재 자체를 감옥으로 간주한다. 인간의 질서가 건축적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인간의 형상 역시 그러하는 것이다. 건축이 사회의 실체이듯 개인의 실체는 인간의 얼굴(형상)이기 때문이며, 인간의 이미지(형상)는 항상 건축의 이미지와 결부되기 때문이다.33) 이런 측면에서 인간 존재 자체가 건축이며 인간은 ‘건축의 도형수’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에 대한 공격은 바로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되며, 반건축적 실천으로서 바타유의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반인간, 나아가 반인본적인(anti-humanism)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바타유에게 건축은 전문가들의 특정 영역이 아니며, 전공 분과(discipline)로서 자체의 범주 내에 머물 수만도 없는 것이다. 사물로서 건축이 관념과 상징으로 확장되면서 사회 전체를 망라하여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때 건축(Architecture)은 단순한 물적 구조물(building)을 넘어서 사회와 문화의 구조를 드러내고/은폐하는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작동한다.34) 인간의 질서와 건축적 질서 사이에 상동성을 발견하는 바타유에게 건축은 체계, 형식, 형상과 같은 개념들의

사, 오생근역, 나남출판, 서울, 1994)

31)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p. 12-13

32) 서구 건축이론에서 의인론적 은유는 오랜 역사를 가진다. 도릭 오더와 이오닉 오더, 코린티안 오더를 남성과 소녀, 여성에 비유한 것으로부터 건축물의 프로필이나 파사드를 인간 얼굴이나 육체에 비유한 것, 건축의 비례와 인체의 비례를 상관시키려는 시도 등이 좋은 예이다.

33) Georges Bataille, 앞의 책, 1929, p.104

34) 이런 주장에는 바타유와 동시대에 프랑스 사상가인 알튀세의 마르크시즘 사상,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상징계’ 개념과의 친연성이 보인다. 바타유는 라캉과 코제브의 헤겔 강의를 같이 들었으며 개인적 교류 외에도 사교의 유사점이 적지 않다.

Catherine Belsey, *Culture and the Real* (『문화와 실제: 라캉으로 문화 읽기』, 경성대학교출판부, 부산, 2008)

25) Georges Bataille, 앞의 글, 1929, p.171

26)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303

27) Georges Bataille, 앞의 책, 1929, p.99

28) Denis Hollier, 「Introduction: Bloody Sundays」, *Against Architecture, The Writings of Georges Bataille*, The MIT Press, Cambridge, 1989, p. IV

29)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헤겔 미학 3』, 두행숙역, 나남출판, 서울, 1998), 53-55쪽

30)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

다른 말이거나 대표하는 말이다.

결국 바타유에게 건축은 ‘현실적 질서’에의 복무를 가장 잘 대변하는 사물로 규정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건축은 이성의 지배, 노동의 생산, 기획과 비축, 계산과 유용성을 상징하는 사물인 것이다. 그런데 바타유가 보기에 건축의 축조, 즉 문명의 건설은 존재하는 것들을 사물의 질서로 환원시키는 대가를 치루고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조화로운 안정을 보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사물화로 귀결된다. 건축은 이런 화석화된 ‘사물의 질서’의 정점을 나타내며 그 절정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다. 바타유는 건축이 상징하는 지배 체계에 대한 저항과 탈주를 위해 욕망의 자유로운 해방,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낭비, 그리고 금기에 대한 위반을 제안한다.

바타유의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의 하나로 평가받는 『저주의 뭉』에서 그는 서구와는 전혀 다른 문명인 아스텍의 건축에 주목한다. “그들의 건축물은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데 쓰였다.”³⁵⁾ 그런데 (서구의 피라미드와 달리) 아스텍의 피라미드는 죽음을 은폐하는 데 쓰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희생물의 죽음을 전시하는 데 쓰였다. 그 ‘소모적’ 희생제의를 통해 아스텍 문명은 축적된 부를 탕진하고 노동이 지배하는 현실 질서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내밀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³⁶⁾ 여기서 내밀성은 고립된 존재가 본래의 모습을 찾고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바타유는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소모하는 파괴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희생제의를 폭력과 광기는 끔찍하지만 잠시나마 현실 질서를 교란하고 무질서와 과잉을 통해 해방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이런 질서에 대한 저항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선 예술이라 부르는 행위에서 구현된다. 예술이야말로 유용성과 무관하게 기존 질서를 흔뜨리는 순수한 위반이자 낭비(dépense)이기 때문이다.³⁷⁾

도키망의 사전에서 바타유는 건축과 관련된 두 항목

35) Georges Bataille, 『저주의 뭉』, 2004, 86쪽

36) Georges Bataille, 앞의 책, 2004, 92쪽

37) 바타유는 “역사, 인류학, 민족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미학, 시, 에로티즘이 교차하는 범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전망 안에 예술을 위치시켰다. 그가 보기에 “인간 존재와 삶 자체가 예술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다.”

차지연, 『예술 혹은 주관적 인간의 탄생』, 조르주 바타유,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 마네』, 차지연역, 위크룸, 서울, 353 쪽

도 집필했다. ‘도살장’(Abattoir)과 ‘박물관’(Musée)이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근대 파리의 도시 계획이 가져온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는 도시 속의 도살장이 박물관으로 바뀌는 시설 상의 전환이었다. 이는 기피 시설을 추방하고 시민에게 공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려는 도시 근대화 과정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바타유에게 그것은 건축과 낭비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밝혀주는 의미 있는 사태로 간주된다.³⁸⁾ 겉으로 보기에 전혀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두 건축 유형이 사실은 삶의 양면을 나타낸다. 도시의 도살장은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와 기관이 해체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장소이다. 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희생제의를 공간은 근대에 들어서 격리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고대 신전이 기원과 도살이라는 이중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도살장은 종교의 영역에 속한다.”³⁹⁾ 도살장의 추함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박물관의 아름다움이 필요했다. 도시의 도살장들은 폐쇄되고 그것을 대체하는 박물관들이 차례로 조성됐다.⁴⁰⁾ 그러나 바타유는 루브르의 박물관화가 왕의 처형을 이은 공포정치에서 이루어졌음을 지적한다. “근대 박물관의 기원은 따라서 단두대의 발전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도살장과 박물관이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시설은 종교와 예술이라는 독립된 두 영역을 나타내는 건축 형식이지만 낭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타유는 특유의 예술론을 피력하면서 오랜 기간 서구 예술을 지배해온 고전적 전통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건축적 골조’가 근대에 들어 인상과 회화(마네의 ‘올랭피아’)의 출현에 의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본다.⁴¹⁾ 이는 바스티유 감옥의 탈취를 통해 지배적인 기념비적 건축에 대한 민중의 증오가 표출된 것과 역사적 계적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마네는 전통의 구속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기의 개성을 지우는 일종의 희

38)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p. 307-309

39) 바타유는 도살, 폭력, 신성, 종교, 축제, 낭비, 노동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본다. 이것이 그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접한다. 기념비적 건축의 건립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Georges Bataille, *Théorie de la religion* (『종교이론』, 문예출판사, 조한경 역, 서울, 2004)

40) 20세기 말 추미에 의한 파리 라 빌레트 도살장의 문화공간(공원, 박물관, 공연장 등)으로의 개조가 그 최후의 사례일 것이다. 공교롭게도 추미의 건축은 바타유를 참조하고 있다.

Bernard Tschumi, 앞의 책, 1996

41) 이는 올리에의 해석이다.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르주 바타유,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 마네』, 차지연역, 위크룸, 서울, 2017, 239, 276쪽

Georges Bataille, 앞의 글, 『Documents』, 1929, p.171

생 제의를 예술로 실천했다. 이는 건축의 지배에 대한 전복이라는 측면에서 바타유의 글쓰기와 동일한 실천적 면모를 띤다. 일찍이 빅토르 위고는 『파리의 노트르담』에서 종이 책이 돌의 책인 성당(건축)을 죽이리라는 선언을 했다. 근대적 상황이 도래하면서 서구 문명을 지배해왔던 건축의 힘이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위고는 바타유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⁴²⁾

이상으로 바타유의 (반)건축 담론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아니며 건축 장르 자체에 대한 비판도 아니다. 대신 질서와 권위의 표상이자 체제와 중심을 구성하는 은유로서 건축에 대한 비판이며, 나아가 서구문화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다.⁴³⁾ 거기로부터의 저항과 탈주를 모색하는 바타유의 반건축적 사유는 건축이 상징하는 이성적 세계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바타유의 반건축은 건축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 해석할 수도 있다. 건축이 서구에서 감당해온 역할에 대한 그의 비판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건축의 힘과 위상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바타유의 반건축적 사유 2 : 철학 비판

여기서 바타유가 반건축과 관련하여 「도퀴망」의 ‘비평 사전’에서 ‘비정형’(informe) 항목을 선정한 이유와 그 서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정형은 형상에 대립되는 말인데, 바타유는 모든 사물이 자기의 형상을 지닌다는 점에서 비정형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허접한 것들을 지시한다고 설명한다.⁴⁴⁾ 건축이 세계의 사물들의 형상을 대표하는 표상이라면⁴⁵⁾ 비정형은 거기서 소외된 타자들에 해당된다. 이때 형상으로서 건축이 질서, 체계, 논리, 형식, 총체성의 동의어라면 비

정형은 그 범주 밖의 것으로 낮고 천하며 이름을 갖지 못한 것, 혹은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것들이어서 사전에 수록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전 항목에 그것을 수록한 바타유에게 비정형이야말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구축의 예술인 건축이 앞의 관념들을 대리 표상하면서 그 밖의 것들을 억압한다면, 비정형은 건축 ‘바깥’에 있는 외재성과 타자성을 드러내면서 건축이 감추고 가려온 세계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바타유의 글, 특히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가 우선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기성 문학이나 철학에서 금기시해온 지저분하고 천박하며 잔인한 내용과 말들이다.⁴⁶⁾ 포르노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바타유의 글에는 똥오줌, 정액, 생리혈, 토사물, 피 같은 몸에서 배출된 액체들이 등장한다. 의도적으로 도입된 그것들은 제 형상을 지니지 못한 비정형들이다. 바타유는 ‘비정형’ 항목에서 철학(학문, 이론)의 목표는 존재하는 것에 ‘수학적인 프록코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⁷⁾ 프록코트는 형식 혹은 구조를 뜻하며 실제 세계의 형상화를 지칭한다면, 수학적이라는 수사는 엄밀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뜻으로, 불투명한 세계/존재를 투명한 것(로고스)으로 환원하려는 ‘건축에의 의지’를 가리킨다.

플라톤으로부터 데카르트, 칸트, 하이데거, 데리다로 이어지는 서구의 주류 철학은 자신을 규정하는 데 건축을 소환해왔다.⁴⁸⁾ 건축적인 은유가 서구 주류 철학의 역사를 압도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⁴⁹⁾ 그 이유는 건축을 구성하는 구조와 철학의 체계 사이에 상동성 때문이며, 거기서 이성, 논리, 질서, 체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 철학, 나아가 학문과 이론이 건축에 의존해 그 존립의 근거를 정당화했다는 뜻이 된다. 건축이 구성하고 지탱해주는 체계의 논리는 정합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단일한 목소리(담론)로 이끌려 한다.⁵⁰⁾ 동시에 철학은 체계의 구축에

42) Neil Levine, 「The Book and the Buiding」, (Robbin Middleton, *The Beaux-Arts*, The MIT Press, Cambridge, 1982), pp. 138-173

43) 가라타니 고진 역시 서구 철학(이론)의 형식 체계가 은유로서 건축에 의존해 성립된 가상적 건물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한다.

Kojin Karatani, *Architecture as Metaphor* (『은유로서의 건축』, 김재희역, 한나래, 서울, 1998)

44) Georges Bataille, “informe”, 「Documents」, No. 7, 1929, p 217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187

45) 형상(form)이 플라톤의 ‘에이도스(eidos)’에서 온 것임은 명백하다. 변하지 않는 사물 배후에 존재하는 지속하는 형식을 플라톤은 형상이라 불렀다.

Branco Mitrovic *Philosophy For Architects*, (『건축을 위한 철학』, 이충호역, 켈처그라피, 서울, 2013), 40-42쪽

46) Georges Bataille, *L'histoire l,de l'œil*, (『눈 이야기』, 이재형역, 푸른숲, 서울, 1979)

Georges Bataille, *Le Bleu du Cie*(『하늘의 푸른 빛』, 이재형역, 서울, 2017)

47)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99

48) 여기서 철학은 논리학, 윤리학, 미학 같은 분야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나 본질을 파헤치는 형이상학을 말한다.

49) K. Michael Hays,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봉일범역, 시공문화사, 서울, 2003), 884쪽

50)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p. 66-67

적합하지 않은 것들(타자)을 배척하고 소외시켜 억압하려 한다. 바타유는 서구 철학에서 건축적 은유에 주목하면서 그것의 근원적 문제와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철학은 결코 ‘집’(house)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단지 건설 현장(site)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집의 이미지는 완성의 이미지인데, 철학은 스스로를 완결된 건축적 형태로 간주하면서 권위를 확보하고 강요하고자 한다.⁵¹⁾ 하지만 그 불가능성은 철학을 훼손시키며 그 미완은 실제로는 철학이 건설 현장임을 드러낸다. 이런 바타유의 반건축적 사유가 건축의 사회 문화적 역할에 대한 비판을 넘어 철학 자체의 건축적 본성에 대한 비판으로 향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데카르트는 철학을 건축물의 건립에 비유했다.⁵²⁾ 칸트가 사유 능력을 ‘이성의 건축술’이라 칭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⁵³⁾ 건축이 추상적인 관념의 구축이자 재현으로 호출되고 있는 것이다.⁵⁴⁾ 이때 철학함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건축술이 되며, 철학함은 건립(짓기, poiesis=techne)과 동의어가 된다. 올리에의 주장을 빌자면 건축은 ‘원구조(原構造, archi-structure)’이며 ‘체계의 체계’로서⁵⁵⁾ 메타적인 지위를 점한다. 이는 철학이 ‘학문의 학문’으로서 자기를 주장하는 일이 건축을 동원해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구조라는 용어가 체계와 조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철학이 건축의 구조 체계를 닮고자 하면서 건축에 기대어 담론을 펼쳐왔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구조가 제공하는 안정성, 정합성, 항구성 같은 속성으로 인해 건축은 철학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모델이 되었다. 결국 건축에 기대지 않고 체계를 묘사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⁵⁶⁾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건축적(Architectonic)이기를 지향하는 철학은 통일된 형식을 지향하기에 타자성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거대한 독백이 되는 것이다. 플라

톤으로부터 아퀴나스의 중세 스콜라 철학을 거쳐 근대 철학에 이르는 서구 주류철학의 전통이 다 그러했다. 시대에 따라 다른 입장과 주장을 펼쳐왔지만 동일성(Identity)의 수호자라는 점에서는 그들은 일치했다. 담론 권력으로서 서구 철학은 동일성의 신화(이데올로기)를 수립하면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옹호하고 그 존속에 기여해왔다. 데리다가 서구 철학을 심문하면서 로고스 중심주의라 규정하며 비판하는 이유이다.⁵⁷⁾ 하지만 바타유는 훨씬 이전에 반건축의 관점에서 서서 철학의 전통을 비판해왔다.

바타유에 따르면 “철학의 기능은 정확히 언어를 도구적 기능으로 제한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적 실천이 집결되는 곳인 이론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데 있다” 한편 “모든 존재는 지성의 형식적인 코드에 의해 지배된다.”⁵⁸⁾ 존재를 동일성 속에 가두려하고 교화해 동화시키려는, 즉 지배하려는 철학의 권력 의지를 겨냥해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짓기(건축=철학)에 대항하는 유효한 전략으로 바타유가 채택한 것은 글쓰기(문학)이다. 이때 바타유의 글쓰기는 이론의 영역을 벗어나려는 몸짓, 이론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실천이 된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차마 말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더럽고 역겨운 것들(비정형)을 기술하면서 “관념에 의해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장소, 즉 물질의 장소”로 독자를 안내한다. 개념화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차이와 타자를 부각시키는 그의 글쓰기는 이질학(hétérologie)이라 불린다.⁵⁹⁾

동일성 대신 이질성을, 논리학 대신 분변학(scatology)을 전략으로 채택하는 바타유의 글쓰기는⁶⁰⁾ 철학이 말하지 않거나 외면해왔던 타자를 도입함으로써 철학/이성을 궁지로 몰아간다. 그의 반건축은 위계적 질서의 영역 바깥에 있으면서 말과 논리와 체계를 초과하는 것을 가져다 합리적 사회가 옹호해온 생산과 비축을 비판하면서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⁶¹⁾ 철학의 한계를 겨냥한 바타유의 위반의 글쓰기는 비형식적이다. 형식적 담론인 철학이 의미를 간직하려는 데 비해 그의 글쓰기는 개념화할 수 없는 비

51) Benjamin Noys, *Georges Bataille*, Pluto Press, London, 2000, pp. 58-59

52) René Descartes, *Discours de la méthode* (『방법서설』, 최명관역, 창, 서울, 2010, 73쪽), 97쪽

53)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순수이성비판 1』, 백종현역, 아카넷, 서울, 2006), 93쪽

54) 강혁, 「건축이라는 특이한 대상」, Jean Baudrillard, Jean Nouvel, *Les Objets Singulier*, (『건축과 철학』, 배영달역, 동문선, 서울), 2003, p. 146

55)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63

56)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70

57) Christopher Norris, *Jacques Derrida*, (『데리다』, 이종인역, 시공사, 서울, 1999), 21쪽

58)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p.163-164

59) Stuart Kendall, *Georges Bataille*, Reaktion Books LTD, London, 2007, pp. 66-79

60)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186

61) Georges Bataille, 『저주의 뿔』, 2004, 59-82쪽

의미(non-sense)에 집착한다.

글쓰기라고 다 반건축적인 것은 아니다. 프루스트는 자신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대성당의 구조를 닮기를 기원했다. 구성력(건축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글 쓰는 이에게 모욕이자 혹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바타유의 소설은 이야기를 장악해 가는 탄탄한 구조를 지닌 글들과 별 관련이 없다. 바타유는 그런 식의 글쓰기를 거부한다. 대신 “책이라 부를 수 없는 책, 끝이 없는 미완성의 책으로” 차이의 공간을 열어 보이려 한다.⁶²⁾ 사실 건축과 책은 ‘닫힌 체계의 증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지녔다. 바타유의 텍스트는 그런 구조를 해체하려 한다. 존재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토대를 잠식하고 흔들어대는 불온한 그의 글쓰기는 철학이 말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이론 너머의 바깥을 넘보려 한다.

이러한 바타유의 글쓰기는 건축에 비유하자면 미로적인 성격의 것이 될 것이다.⁶³⁾ 그것은 아리아드네의 실을 찾아 미로를 탈주하려는 도정이 아니라, 미로 공간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끊임없이 이탈하는 도정이라는 점에서이다. 그는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지식의 실타래’를 욕망하지 않는다. 대신 기꺼이 미로에 갇히고자 한다. 미로는 안팎도, 경계도, 출구도 없는 공간이다. 방향과 위치를 알 수 없는 공간이고 무질서와 혼돈의 공간이다. 미로의 공간은 위계가 없으며 무정부적이다. 바타유가 보기에 존재의 구조가 바로 미로이다.⁶⁴⁾ “인간 존재는 미로 구조를 갖는다.” 바타유는 ‘미로’라는 에세이를 썼고 수정하여 『내적 체험』에 다시 발표했다.⁶⁵⁾ 거기서 그는 미로와 피라미드라는 두 유형의 건축을 대비시킨다.

바타유에 의하면 피라미드는 존재의 미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건립된 것이다. 피라미드의 건립자, 곧 건축가가 바로 철학자들이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그들은 존재의 전경을 포착할 수 있고 미로를 벗어나는 지도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병적인 장난’이다.⁶⁶⁾ 철학의 치명적 문제는 자신의 시각 기관의 맹점에 대해 무지한 채 자신의 ‘봄/

얹’을 맹신한다는 것이다. 철학자의 입장에 서면서 그는 “존재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지만 (진정) 존재에 관여하는 것은 중단한다.” 바타유는 주인과 노예의 비유를 든다.⁶⁷⁾ 주인은 한 가지 기능으로 규정되는 노예에게서 그 존재의 일부를 박탈한다. 그런데 그 기능이란 ‘존재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는/가능한 것이다. 유사한 현상이 철학자에게 발생한다. 지식을 기능으로 수용하는 철학자는 존재를 지식으로 축소하면서 존재를 손상시킨다.

피라미드 건립의 기획은 기만이고 헛된 것이다. 그러나 바타유도 인정하듯 그릇된 길일지라도 그것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노력한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라미드(건축)의 은유는 인간 실존의 불가피한 숙명을 상징한다. 피라미드의 정상은 환각으로 상상적인 장소이다. 실로 “피라미드는 미로 자체의 산물에 불과하며 전적으로 미로에 속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형이상학적 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서구 담론이 피라미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했다. 바타유는 “미로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가짜 출구”를 믿지 않기에 탈주의 욕망 대신 미로를 긍정하고 거기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위험을 감수한다. “미래에 대한 무지”(니체)를 좋아하기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로를 더듬어 나간다.⁶⁸⁾ 바타유의 글쓰기가 이성이 아닌 몸으로의 실천인 이유이다.

피라미드는 건축이 지닌 힘과 한계를 지시한다. 철학, 과학, 이론은 인간을 안심시키고 조화와 통일로 이끈다. 하지만 그것은 장악이자 지배이며 억압이기도 하다. 실체이자 개념인 피라미드는 교화하는 기념물로서 ‘의미의 유일한 방향’을 강요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피라미드가 우위를 점하지만 그것은 파악할 수 없는 미로에 연루되어 있다. “인간 존재의 미로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의 반복되는 행로의 자취를 쫓아가면 된다”고 바타유는 말한다. “존재가 필연적으로 언어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에, 존재는 결국 언어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언어는 미로를 구성한다.” “이 언어의 존재 속에서 ‘나의’ 존재는 길을 잃는다”고 울리에는 말하고 있다.⁶⁹⁾

62) Georges Bataille, 「Le labyrinthe」,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 109, 129

63) Denis Hollier, 앞의 책, 1993, p.110

64) Fred Botting and Scott Wilson, *Bataille*, Palgrave, 2001, New York, pp. 79-81

65) Denis Hollier, 앞의 책, 글, 1993, p. 133

66) Denis Hollier, 앞의 책, 글, 1993, p. 131

67) 이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비유와 비교되어 흥미롭다.

68) Denis Hollier, 「Le labyrinthe et la pyramide」, 앞의 책, 1993, pp. 110-133

69) 그러므로 미로라는 건축 공간(은유)은 불가피하게 존재, 그리고 언어와 결부되어 있다.

Daniel Barbiero, 「Against Architecture」, *Design Book Review* 19, Winter, The MIT Press, Cambridge, 1991, p. 37

삶의 실재에 다가가기 위한 바타유의 이질학이 관념이나 이성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물질적인 것, 몸의 것에 속한 것을 도입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했다. 이들 더럽고 역겹고 천해서 거론하기 어려운 것들, 그래서 철학이 외면하고 간과해왔던 것들은 이성을 초과하는 과잉의 것들이다. 그것은 기성 체제의 법과 권위, 합리성과 유용성이 억압하고 배제해온 것들이다. 바타유는 철학의 영토 내에 편입되지 않는 이들 타자를 불러내 철학의 무능을 폭로한다. 나아가 근대의 계몽적 이성주의와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예술이 지닌 구축적 본성을 뒤흔든다. 순수 이론적인 철학, 곧 고상한 전통/정통 신학의 종언을 고하는 바타유의 사유가 불편하고 불순하며 위험한 이유이다.

바타유의 위반의 글쓰기가 철학의 한계를 겨냥하고 철학의 지배에 저항하기에 그의 반건축적 사유가 반철학으로 연결됨은 쉽게 납득된다. 서구 철학에서 존재는 항상 언어를 집으로 삼는 존재, 언어에 지지되는 존재(하이데거)였다.⁷⁰⁾ 바타유의 미로적 글쓰기는 로고스로 포착할 수 없는 것, 존재의 언어로 닿지 않는 바닥의 것들을 건들고 휘젓는다. 이 점에서 반건축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여전히 철학의 영토에 머물고 있는 여느 철학자들과 바타유는 다르다. 바타유의 글쓰기가 철학의 언어(영토) 바깥으로 스스로를 추방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바타유의 사유를 소개하고 정리하면서 그의 반건축적 사유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바타유의 반건축 담론에서 그가 겨냥하는 대상은 건축 자체가기보다 ‘은유로서 건축’이다. 이때 건축은 물리적 실체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표상하는 관념이자, 사회와 문화라 불리는 것, 즉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상황과 조건을 구성하는 비가시적 구조를 가리킨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층의 것이지만 건축을 매개로 인식되고 사유될 수 있다.⁷¹⁾ 그러므로 바타유에게 건축은

서구 철학, 특히 형이상학을 가능하게 하고 지지하는 메커니즘의 다른 말이다. 그는 건축이 가진 구축적 본성을 통해 인간 사회와 철학의 기저에 있는 체계와 질서, 이성과 논리, 그리고 동일성에 대한 욕망과 의지를 조명하고 있다. 바타유의 반건축은 그런 기제가 지니는 문제와 한계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다.

바타유의 반건축적 사유는 역설적으로 철학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학문 체계와 논리의 모델로서 건축이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음을 가르쳐준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로서 집짓기(building)와 대문자 A로 시작되는 건축(Architecture)이라는 ‘근원적인 건립’ 사이의 구분과 차별화가 있다. 서구에서 건축은 역사적으로 담론(discourse)을 수반하여 존립해왔다. 건축이 이론과 원리를 통해서, 즉 개념화를 통해서 사고되고 실행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건축의 담론은 고대부터 그 근거를 철학에서 구하였으며, 한편 철학은 건축을 통해 인간(사회)과 존재를 사유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건축과 철학 사이의 상호관계, 즉 서로를 반영하여 자신을 정립하는 길항 작용 내지 거울 관계야말로 서구 특유의 문화적 전통이며 반건축적 사유가 성립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칸트는 ‘온전한 건축술적 기획’으로 철학의 토대를 다시 정초(定礎)하고자 했다.⁷²⁾ 과거 형이상학의 기반의 부실함을 확인하면서 “모든 사물이 그 위에 놓일 수 있는” 기초의 재설정 작업이 칸트 철학의 유명한 ‘비판’(Kritik)이었다.⁷³⁾ 그가 “체계들의 기술”이라고 명한 순수 이성에 의한 인식의 건축술로 철학의 구조물을 다시 세움으로서 칸트는 철학의 역사를 새로 쓰고자 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서구 형이상학의 철학적 건축술이 지닌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다.⁷⁴⁾ 그는 형이상학이 서 있는 지반의 조건을 드러냄으로써 그 한계가 건축적 은유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이데거는 철학이 건축을 소환해야 했던 것은

인류학자이기도 했다. 바타유도 물론 이런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Edith Kurzweil, *The Age of Structuralism* (『구조주의의 시대』, 이광래 역, 종로서적, 1985), 27 쪽

72)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순수이성비판 2』, 백종현 역, 아카넷, 서울, 2006), 957쪽

73) Mark Wigley, *The Architecture of Deconstruction, Derrida's Haunt*,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93, pp. 7-8

74)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에서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정초 작업,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다.

Martin Heidegger,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선일역, 한길사, 서울, 2001), 65-66쪽, 166-167쪽

70)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언어의 집에 인간이 거주한다.” 하이데거는 언어가 소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에 근본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집’이란 비유를 사용한다.

Walter Biemel, *Heidegger* (『하이데거』, 한길사, 서울, 1997), 234-266쪽

71)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구조주의 철학의 전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언어학의 심층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대립하는 새로운 지적 전통을 구축했다. 구조주의를 통해 그는 철학의 지적 우월성에 도전한 최초의

철학 내부의 문제, 즉 토대의 부실성 내지 불안정성 때문임을 지적한다. 철학이 건축을 필요로 한 이유는 지지와 구축이라는 표상 작용을 통해 그 하부, 즉 토대가 부재함을, 다시 말해서 ‘지반 없음’(ungroundedness)을 숨기고자 함이었다. 형이상학적 토대의 무근 거성을 은폐하기 위해 건축이 소환된 것이다.⁷⁵⁾ 이는 건축적 은유가 하나의 은유를 넘어서 근본적인 은유인 이유를 가르쳐준다. 바타유의 반건축은 이런 은폐된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의 작동 기제를 폭로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바타유의 텍스트가 제공하는 시사점은 사소하지 않다. 그의 반건축적 사유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담론들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건축에 관해 못 들던 ‘다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자신의 영역과 작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바타유의 건축 비판이 건축이 삶과 문화에서 차지하는 심대한 비중을 지시한다는 역설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건 관념으로건 건축의 무게를 인식하고 건축이 지닌 양면성을 직시할 때 건축 전공자들은 실용성이나 미학을 넘어선 윤리적 측면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형식 게임으로 치닫는 현대 건축의 상황에서 건축 본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성찰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차이와 타자 같은 개념이 점점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바타유의 사유는 기여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 예로 그의 ‘비정형’이 현대건축에 제공하는 실천적 가능성을 생각해보기만 해도 그러하다.⁷⁶⁾

참고문헌

1. Denis Hollier, A La Prise De La Concorde, Essais sur Georges Bataille, Gallimard, Paris, 1993
2. Denis Hollier, Against Architecture, trans. by Betsy Wing, The MIT Press, Cambridge, 1989
3. Stuart Kendall, Georges Bataille, Reaktion Books LTD, London, 2007
4. Michael Richardson, Georges Bataille, Routledge, London, 1994

75) Mark Wigley, (K. Micheal Hays, Ed.,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98), pp. 662-665

76) 바타유의 반건축적 사유가 독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라기보다 그의 사유에 기반을 둔 이론적 펼침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비정형 역시 그러하다.

5. Benjamin Noys, Georges Bataille, Pluto Press, London, 2000
6. Fred Botting and Scott Wilson, Bataille, Palgrave, 2001, New York
7. Mark Wigley, The Architecture of Deconstruction, Derrida's Haunt,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93
8. K. Micheal Hays, Ed.,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98
9.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The MIT Press, Cambridge, 1996
10. Elizabeth Grosz, Architecture from the Outside, The MIT Press, Cambridge, 2002
11. Robbin Middleton, The Beaux-Arts, The MIT Press, Cambridge, 1982
12. Georges Bataille, La Part Maudite (조르주 바타이유, 『저주의 몫』, 조한경역, 문학동네, 서울), 2004
13. Georges Bataille, L'Erotisme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 조한경역, 민음사, 서울), 1989
14. Georges Bataille, Théorie de la religion (조르주 바타이유, 『종교이론』, 조한경역, 문예출판사, 서울), 2015
15. Georges Bataille, Lascaux Ou La Naissance de L'Art (조르주 바타이유,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 마테』, 차지연역, 위크롬, 서울), 2017
16. Georges Bataille, L'impossible (조르주 바타이유, 『불가능』, 성귀수역, 문학동네, 서울), 2014
17. Georges Bataille, Le Bleu du Cie (조르주 바타이유, 『하늘의 푸른빛』, 이재형역, 비채, 서울), 2017
18. Georges Bataille, L'histoire l,de l'œil, (조르주 바타이유, 『눈 이야기』, 조한경역, 문예출판사, 서울), 2015
19. René Descartes, Discours de la méthode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최명관역, 창, 서울), 2010,
20.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1』, 『순수이성비판 2』, 백종현역, 아카넷, 서울), 2006,
21.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헤겔, 『헤겔 미학 3』, 두행숙역, 나남출판, 서울), 1998,
22. Catherine Belsey, Culture and the Real (캐더린 벨지, 『문화와 실재: 라캉으로 문화 읽기』, 경성대학교출판부, 부산), 2008
23.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오생근역, 나남출판, 서울) 1994
24. Christopher Norris, Jacque Derrida, (크리스토퍼 노리스, 『데리다』, 이종인역, 시공사, 서울), 1999,

70 논문

25. Kojin Karatani, Architecture as Metaphor (가라타니 고진, 『은유로서의 건축』, 김재희역, 한나래, 서울), 1998
26. Kojin Karatani, Tetsugaku No Kigen (가라타니 고진, 『철학의 기원』, 조영일역, 도서출판b, 서울), 2015
27. Edith Kurzweil, The Age of Structuralism (에디츠 쿠르츠웨일, 『구조주의의 시대』, 이광래역, 종로서적, 서울), 1985,
28. Martin Heidegger, Kant und Problem der Metaphysik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선일역, 한길사, 서울), 2001,
29. Walter Biemel, Heidegger (발터 비멜, 『하이데거』, 한길사, 서울), 1997,
30. Jean Baudrillard, Jean Nouvel, Les Objets Singulier, (장 보드리야르, 장누벨, 『건축과 철학』, 배영달역, 동문선, 서울), 2003
31. Branco Mitrovic Philosophy For Architects, (브랑코 미트로비치, 『건축을 위한 철학』, 이충호역, 컬처그라피, 서울), 2013
32. Bryan Magee, Some Creators of Comtemporary Philosophy, (브라이언 매기, 『위대한 철학자들』, 동녘, 서울), 1994
33. K. Micheal Hays, Ed., (마이클 헤이즈,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봉일범역, 시공문화사, 서울), 2003

접수(2021. 10. 28)

수정(2021. 11. 27)

게재확정(2021. 11. 28)